

'2010 인재상' 여민지 등 100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장의회는 2010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여자축구의 희망' 여민지(한안대산고), 지소연(한양여대) 선수 등 100명(고교생 60명, 대학생 40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는 11명의 대학생·고등학생이 뽑혔다.

광주에서는 남현종(조선대)씨가 타월한 리더십을 평가받아, 양은규(고려고)군은 학업성적이 뛰어나 수상자가 됐다. 청각장애를 딛고 미술대전에 입상한 전동민(조선대)씨,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장서윤(살레시오여고)양, 최인오(승일고)군, 지적장애에 굴하지 않고 국가자격증을 획득한 윤준재(전남고)군 등이다.

전남지역 수상자는 김진숙(순천제일대학)·장신정(명신대학)씨와 김치형(전남과학고)군·서채리(순천여고)·신수빈(답양고)양 등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장학금 300만원이 수여되고 각종 연수기회가 주어진다.

/운영기자 penfoot@

1회 오방상에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사)오방기념사업회(이사장 김국웅)와 광주 YMCA(이사장 이철우)는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KT정보센터에서 '제1회 오방상 시상식'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귀일원(대표이사 오세희)에 오방상을 수여했다.

사회복지법인 귀일원은 지난 1950년부터 고아원 '동광원'을 운영해 600여명의 원생을 기우워왔으며, 폐결핵 환자 수용시설 '승동원',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귀일정신요양원',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귀일민들레집', 장애인 직업체활시설 '귀일향기일향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류와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수현기자 yang@

전남대병원 '무등산공유화' 1600만원 기부



전남대병원(병원장 김영진)은 10일 오후 '2010년 무등산사랑 기부'를 벌인 무등산 자락 무등길 개방행사가 열리고 있는 충장사에서 병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600만원을 (재)무등산공유화재단(이사장 강정재)에 기부했다.

이 성금은 전남대병원이 무등산에 전남대병원 통산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모금한 것으로 (재)무등산공유화재단은 앞으로 적당한 장소를 선정, 전남대병원 직원들이 무등산의 자연환경에 맞춰 통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종친회

▲박수성(광주 북구청 세무과장)·김영실(효천종합건설대표)씨 장남 혁준(정읍보건소장)군 김만근(광주 북구청총무과장)·김경숙씨 차녀 수빈(광주 지하철공사)양=17일(일) 오후 1시 운암동 그랑시아 웨딩타워 2층(크리스탈홀)

▲이은재·선태남씨 막내 쌍식(무안군 농업기술센터)군 이기열·김금오씨 장녀 하니양=17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약동 웨딩의 전당 금호 2층(토파즈홀)

동창·동문회

▲2010 광주공고(동맥인) 한마음 큰 친지(회장 김일두)=17일(일) 오후 7시 30분 모교 운동장. 062-511-1946(동창회사무실)

“관람객이 보물단지…저변확대가 비결”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성공하려면 일반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라루이 데지(梅井 良司) 일본 스즈카 F1 서킷 운영이사는 스즈카 그랑프리 결승전을 하루 앞둔 9일 한국 최초로 열리는 영암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라루이 이사는 이날 스즈카 서킷 운영본부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모터스포츠 대회는 특정 계층의 관심보다는 저변 확대가 우선"이라며 "대회 개최 자체나 대회운영법인은 관람객 모두를 '보물단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는 올해로 21번째 대회를 치르면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가 와서 예선 경기가 취소됐는데도 경주장을 찾는 관람객들로 조그만 도시가 북적거릴 정도다.

F1 일본 그랑프리뿐만 아니다. 스즈카 서킷에

서는 매년 4륜차 경주와 모터사이클 내구력 테스트를 위한 8시간 경주 등이 3~4일 정도 치러지는데, 이를 대회를 찾는 관람객과 방문인수는 하루 최대 15만명에 달하고 5일 이상 지역에 체류한다.

장거리 여행 고성능 자동차(Grand Touring Car) 경주대회, 포뮬러 일본(Formula Nippon), 전 일본 모터사이클 골드레이스 등 8개 국내 선수권 대회도 스즈카 서킷에서 열린다. 이외 열리는 스피드 대회만 20여개에 이른다.

매년 대회를 개최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시설

나후문제로 고생바시(市)로 대회 유치를 넘겨줬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대회 유치를 성사시키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라루이 이사는 일본 F1 대회의 성공 요인과 관련, "경주장을 마련한 뒤 첫 대회를 치르기까지

카트레이싱 등 모터스포츠에 대한 공감대를 장기간 형성시킨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스즈카 서킷에서는 스타 선수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올해 F1 랭킹 25위인 사온 암모도(HRT 팀) 등의 선수를 배출했고 어린이들이 모터스포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평일에도 범프카·카트레이싱 등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경주장 인근에 종합관광단지인 '스즈카 랜드'를 조성해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 때문에 경주장 건설 이후 30년이 지난 뒤에야 첫 대회가 열렸지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업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자동차 기술의 발달을 견인하는 계기로 삼은 것도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글·사진=일본 스즈카 창립수기자 bungy@



하루 50km 걸어 5년간 한국 10바퀴 완주

70대 도보여행가 남상범씨

도보여행가 남상범(78)씨가 "우리 땅을 열 벤 걸겠다"며 매년 두 차례씩 대한민국을 누비니 지 1015일째인 지난 9일 날 '대한민국 10바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에서 출발해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 납해안을 거쳐, 동해안 바닷물에 밭을 적시고 휴전선 옆 길을 걷는 대한민국 일주를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그는 약 2년 9개월을 걸 위에 있었고 하루 평균 40~50km를 걸었다. 그가 걸은 거리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5000km를 넘는다.

바닷가를 따라 걷기를 고집한 남씨는 육지만이 아니라 신안군도 임자도, 신의도, 하의도, 비금도, 흑산도, 흥도, 완도, 보길도, 외나로도, 거제도 등 수백 곳의 외딴 섬도 빼놓지 않고 둘렀다.

'개발'이라는 핑계로 신음하는 우리

1990년대 초반까지 사업을 하던 그는 1992년 건강검진에서 직장에 궤양이 있는데 암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전국의 산을 찾아다녔다.

2005년 건강검진을 다시 받은 남씨는 10여년간 그를 괴롭힌 궤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검사결과를 받아들었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마음에 품어온 '대한민국 10바퀴'라는 꿈을 실현하려 길로 나섰다.

여행길에서 사귄 친구만 1000여 명. 지난 여행에서 만난 친구를 찾아가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신세지는 것이 외로운 여정의 나이였다.

그가 밟아 살았던 대한민국은 이념적, 지역적, 경제적으로 깊은 골이 파여 있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영남과 호남 사람들이 서로에게 품은 적개심은 섬뜩할 정도였다고 한다.

남씨는 여행을 안으로 자신의 여행기를 책으로 펴낸 계획이다.



땅을 볼 때도 마음 한구석이 명드는 듯 했다.

남씨는 올해 안으로 자신의 여행기를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동신대, 첨단 강의동에 모의호텔 오픈



동신대(총장 김필식)는 최근 1억원을 투입해 첨단강의동 4층에 40평 규모의 모의호텔을 완공했다. 모의호텔에서는 호텔리어 실무와 매너, 감각, 노하우를 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진도청년회의 뇌종양 고교생에 성금 200만원



진도청년회의(회장 이재평)는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치료중인 조세진(17·진도실고·지동차과)군의 치료비로 '사랑의 성금' 200만원을 지난 6일 전달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광주북구 '천·지·인 문화 소통 길'

2010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제로 나뉘어 조성된 산책로에는 마한식대·석실분·갤러리·쌈지·공원·걷고 싶은 산책로·길개천·꽃밭·시화관·문화분야 등 다양한 전시관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현재 문화 소통길은 도심 속 선진 명품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문화 소통길은 지역민과 전문가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자연과 문화, 사람을 한데 아우르는 광주 최고의 대표적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송귀근 광주행정부시장, 체전선수단 격려



광주시 송귀근(원쪽) 행정부시장이 지난 8일 전국체전이 열리는 진주를 찾아 광주시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종친회

▲박수성(광주 북구청 세무과장)·김영실(효천종합건설대표)씨 장남 혁준(정읍보건소장)군 김만근(광주 북구청총무과장)·김경숙씨 차녀 수빈(광주 지하철공사)양=17일(일) 오후 1시 운암동 그랑시아 웨딩타워 2층(크리스탈홀)

▲이은재·선태남씨 막내 쌍식(무안군 농업기술센터)군 이기열·김금오씨 장녀 하니양=17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약동 웨딩의 전당 금호 2층(토파즈홀)

동창·동문회

▲2010 광주공고(동맥인) 한마음 큰 친지(회장 김일두)=17일(일) 오후 7시 30분 모교 운동장. 062-511-1946(동창회사무실)

제공, 회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문화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나주임씨 무안지구(목포·신안·영암·함평) 청장년회 정기 월례회(회장 임종천)=14일(목) 오후 7시 풍년가든(무안교육청 앞) 061-454-4161, 010-5378-8500(총무 임창진)

▲이은재·선태남씨 막내 쌍식(무안군 농업기술센터)군 이기열·김금오씨 장녀 하니양=17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약동 웨딩의 전당 금호 2층(토파즈홀)

▲광주 외국인 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가정 등.

▲광주 외국인 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가정 등.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보험=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제,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 있는 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 (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